NAVER

카페홈 가입카페 새글 내소식 채팅 박재형

전체글보기 【알립니다】 【Drawing】-煥 【Cartoon】- 煥 【Fiction】 - 煥 【完 - 끝났어요!】

카페정보 나의활동

매니저 S 홍새벽
since 2006.05.29.
카페소개

가지1단계
9,420 초대하기
즐겨찾는 멤버 814명
게시판 구독수 1,512회
우리카페앱 수 405회

주제 문학/창작 > 소설/인터넷소설

카페 글쓰기

카페 채팅

검색

즐겨찾는 게시판

전체글보기 89,694
카페태그보기
베스트게시글

【알립니다】
└ 【알립니다】- 小
【경고리스트】
【의견&신고】
【등업게시판】

【EVENT】
└ 【2019 활동이벤트】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 【초자연적 또띠아】
└ 【다회님만】
【홍보관】
└ 홍보관 허가요청

:Community:

【가입인사】
【출석체크】
【릴레이 소설】
【끝말잇기】
【Behind Story】
【잡담코너】
【비평&추천】

【Fiction】 - 煥 >

[정엘 장편] (정엘×새연)3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11. 22:19 조회 175

댓글 4 URL 복사

쓰다보니 소설이 굉장히 재미가 없네요 ㅋㅋ
그래도 바로 가보도록 하죠~

===
"너희는...대체 정체가 뭐야?"
"연..화"

맙소사 쟤네가 왜 여깄어?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고 있는줄 안데다가 숲을 만드느라 신경을 쓰느라 연화일행이 다가 오는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명이 한꺼번에 오는데 기척을 느끼지 못하다니!!방심해도 너무 방심했잖아

일단 발뺌하고 보자!!

"응?우리 정체라니? 우린 평범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이야"《트로웰
"맞습니다. 어렸을때부터 같이자란 죽마고우입니다"《미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람이 불고 분명히 비오는 날씨가 아니였는데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지?《학

어쩌지?바람은 그렇다 쳐도 비는 변명거리가 별로 없는데...에라 모르겠다!!아무렇게나 말해보자

"바람은 갑자기 분거야. 비는 사실 우리마을에 내려오는 약이 있어.그 약을 뿌리면 나무도 빨리 자라고 공기중의 물방울을 모아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거야. 그 약을 새의 발쪽에 묵어서 공기중에 뿌린거라 비가 내리는 거야"

나 뭐래니..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믿을리가 없잖아. 이제 진짜 큰일났다..

"비를 내리게 해주는 약이라니 그런게 존재할 수 있어?"《윤
"이..있어!우리 마을은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정도로 멀리 있거든!"《엘

암,멀고 말고. 여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니깐. 그곳에선 드래곤들이 마법으로 인공우까지 뿌려준단다~

"그런게 있다니 너희 마을 진짜 신기하다!!한번 가보고 싶어~"《연화

??저기..연화야?이말을 지금 믿는거니?누가봐도 수상한데?그렇게 믿다가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아무리그래도, 비를 내리게 해주는 약이라니. 그런게 있을리가 없잖아. 들어본적도 없다고"《학

그래 저게 정상반응이지.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면 되겠지?
나는 트로웰에게 부탁해서 아까와 같은 악을 받았다
그리곤 그것을 공중에 뿌리는 동시에 그자리에 작은 비를 만들어 뿌렸다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N
【Etc】 - 煥
【完 - 끝났어요!】 N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ㄴ 게시물 리턴
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ㄴ 【2015 대항전】
ㄴ 【2016 활동이벤트】
ㄴ 【2017 콘테스트】
ㄴ 마니또
ㄴ 순간포착!
ㄴ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1명

pjh5338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

모두의 눈이 커지면서 믿을수 없다는 표정을 했다

"말도안돼!이게 진짜로 되잖아?"《윤
"와~신기하다. 이런거 처음봐"《연화

모두가 약이 신기한듯 비가 오는 자리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밤중에 왜 이런걸 하는거야?"《재하
"그건...불의 부족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에요. 저희가 심은 나무는 빨리 자라고 비까지 내리면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고 땅고 비옥해 질테니까요"《엘
"..."
"고마워. 불의 부족을 위해 힘써줘서"《연화
"후훗~뭐 이런걸로~"《엘

다행이 잘 넘어간거 같네.위험했어

우리에겐 롤로코스터 같았던 순간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왔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연화
"잘가~형,누나들~"《마을 아이들

힘든환경속에서도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뭐가 그렇게 좋은거야,엘?-
-아~후훗,아이들이 웃는게 귀여워서~-
-확실히 보기 좋군요-
-그치?저런 아이들이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토양이 비옥해져야 할텐데-
-큭큭,엘은 다정하다니깐~뭐 땅은 조만간 그렇게 될거야~-
-트로웰,혹시 혜안 썻어?-
-글~쎄~?-
-으악!답답하니깐 빨리 말해봐-
-푸흐흡, 맞아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꺼야-

'그리고 그 숲이 마을의 단비인 만큼 불행도 찾아올꺼야..'

-다행이다~그럼 식량 걱정은 안해도 되겠는데?-
-엘은 마음씨가 착하군요-
-흥!단순한 거겠지~-
-...이프리트..너 진짜 계속 그러면 아버지랑 결혼 못하게 훼방놓는다?-
-이익!언젠 도와줬냐?-
-적어도 방해는 않했지~-
-저거 오래살더니 영악해졌어!!-
-푸흐흐흡-
-웃지마,트로웰-
-푸흐흐흐흡-

웃지말하니까 더 웃어주는 트로웰이였다

-그나저나 북계에서 준비했다던 괴생명체말이야...혹시 마물일까?-
-글쎄..가능성은 높아. 우리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서 베히모스가 나왔잖아-
-그런데 그놈들이 왜 여기 있는거지?
-차원의 문이라도 열린거 아닐까요?그런데, 그들은 마물이지 않습니까?아무리 약한 마물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포획할수 없을텐데요?-
-게다가 무기로서 다루는것 까지 가능하다는건 불가능해-
-일단 우리가 직접 보자. 정말 그 괴생명체가 마물이라면 분명히 전쟁에 데리고 나올꺼야..-

우리는 그후로도 한참이나 마물에 대해 의논했다
그리고 마물이 나올경우 그들은 인간이니 우리가 나서서 처리하기로 했다. 눈에 띄어서 좋을건 없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수도 없이 죽을테니깐
.
.
.

"이제 거의 다 온거 같은데?"《트로웰
"수가 엄청나"《윤
"그러게..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꺼야?다짜고짜 쳐들어가?"《이프리트
"아니.아마 공도와 채화에서 군사들이 올꺼다. 우리는 그들이 싸우는걸 기다렸다가 중간에 낄꺼야:《학

전쟁이라...그리 내키지는 않지만..어쩔수 없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이 전쟁이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가져다 줄것이란걸...

아침이 되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됬다
저멀리 공도와 채화의 군사들이 빼곡하게 평야를 채우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풀숲에 숨어서 지켜보다 중간에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멀리 북계의 군사들 사이에 거대한 천으로 둘러쌓인 무언가가 있다. 아무래도 저게 그 괴생명체 인가보다. 어떤것인지 궁금해 물의 기억을 읽어보려 했으나 곧있으면 밝혀 질테니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와아아아아!!!"
"드디어 시작했나보군"《키쟈
"연화랑 윤은 여기에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검사라고 했지? 전쟁에 나가도 괜찮겠어?"《재하
"저희는 괜찮습니다. 스스로 지킬만큼의 실력은 있습니다"《미네
"한가지 걸리는 거라면 그 괴생명체겠지.신아 뭔가 보이는게 있어?"《학

이멀리서 그게 어떻게 보인다는 거지?우리처럼 시력이 좋은게 아닐텐데?

"...커다란..우리가 있어. 그안에서 뭔가가 움직여"《신아

정정한다. 천리안이였지,참. 밖에서 야영할때 우리는 사룡의 능력에 대해 들었었다. 키쟈는 무엇이든 찢어버리는 용의 손톱. 신아는 마비능력을 가진 천리안. 재하는 높이 도약할수 있는 용의 다리.마지막 제노는 상처도 금방 나을수 있는 불로불사의 몸.
그런게 있다니 참 신기하네

그때였다

"으아아악!!!"
"뭐..뭐지?"《연화
"공주님!저기 보세요!"《키쟈
"저건..."《엘

베히모스?!?!?!

설마했는데 역시나!!그래도 베히모스가 네마리라니!!
인간들에겐 한마리 상대하기도 엄청나게 힘든데!!

"연화. 지금 나가자. 저놈들은 우리가 상대할께,너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엘
"안되,너무 위험해"《연화
"후훗,괜찮아. 저놈들은 우리가 제일 잘알거든"《엘
"...알았어. 조심해야되"《연화

정령왕한테 조심할께 있을려나~
아무튼 우리는 그대로 베히모스의 등장으로 혼란에 빠진 전쟁터로 뛰어들었다

<전쟁터>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건 수원(고화국 국왕)과 주도(하늘의 부족장군),그리고 근태(땅의 부족장군)이였다
"주도장군!!이상한 괴생명체가 우리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대체..저게 뭐야!"《주도
"수원 폐하!!위험하니 물러나 계세요!"《근태
"글쎄요..이미 막힌거 같은데요?"《수원

현재 북계는 베히모스를 앞세워 병사들이 도망치면 그들을 잡아 죽이는 수법을 쓰고 있었다

"으아아악!!"

병사하나가 북계병사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

'휘이익,푹'

그때 바람을 가르며 화살하나가 북계병사의 등의 박힌다.

"!!!"

수원과 주도,근태는 갑자기 멀리서 날라온 화살을 보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람에 후드가 벗겨지며 드러나는 태양에 비치는 붉은색 머리칼
바로 연화였다
멀리서 활 시위를 당기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여왕님처럼 멋있는 자태를 뽐냈다

"!!!연...화?왜 여기에..?"《수원

다른 두사람도 굉장히 놀란눈치다
연화는 학과 윤,사룡 그리고 처음보는 4명을 데리고 북계의 군사들을 빠르게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사룡들은 봤지만 저 4명은 누구지?'

***<시점전환>

"병사들은 제노들이 맡을게, 너흰 저 괴물을 상대해줘~"《제노
"알았어!"《엘

우린 병사들을 가볍게 처리하고 베히모스에게 전진했다
베히모스에게 도착한 우리는 각자 한마리씩 담당해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가 앞에 도착하자 베히모스는 심하게 으르렁 거렸다
베히모스는 발톱으로 나를 공격했고 나는 검을 들어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곤 온갖 상처를 입히고 베히모스가 지치자
지난번 처럼 높이 뛰어 베히모스를 처리했다
다른애들도 나처럼 1분도 되지 않아 베히모스를 처리해버렸다

'휘이잉'

순간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릴 만큼 주변이 조용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너나 할것 없이 주변의 모든 병사가 우리를 쳐다봤다
이런,너무 눈에 띄었나?조금 시간 끌다 끝낼걸 그랬나?

"100명이 덤벼도 상처도 내지 못햇던 그 괴물을!!"
"저들은..누구지?"《주도
"...글쎄요..하지만 대단한 실력자라는건 알겠네요"《수원2853

수원과 주도도 마찬가지로 놀란 눈을 하면서 우리를 쳐다봤다

-전부다 우릴 쳐다보는데?-《이프리트
-우리가 좀 심하게 빨리 끝냈나?-《엘
-조금 시간 끌걸 그랬네요-《미네
-뭐,우린 우리 할일 했으니깐 다른애들한테 돌아가자-《트로웰

우리는 다른애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돌아서 갔다
우리가 길을 가자 병사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2개로 길라졌다.

우리가 돌아갔을때 다른애들은 멀이 있어서 못봤는지 한창 싸우고 있었다.

"우리가 좀 도와줄까?"《엘
"아,그럼 고맙지"《연화

우리는 각자 검을 뽑아 째빠르게 적들을 처리해 나갔다
베히모스가 있던 곳도 우리가 가서그런지 다시 싸움이 시작됬다

그런데..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나는 찝찝한 기분으로 적들을 계속 베어 나갔다
그리고 적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왔다

"!!!"

갑자기 놀라는 학과 연화,그리고 연갈색 머리의 남자

저사람들은...아까 베히모스근처에 있었던..

"폐하.."

폐하?!?저사람이 왕이야?
근데 왜 저렇게 놀라지?게다가 서로를 보는 시선이..가만..연화는 공주고 저사람은 왕인데 왜 연화는 밖에 있는거지?호위무사까지 있는거 보면 궁에서 자란거 같은데..설마 저사람이 반역을?
세사람은 서로를 말없이 쳐다봤다. 전쟁터 속에서 오로지 그들만 시간이 멈춘듯 했다

"공주님,이만 돌아가죠"《학
"...돌아가자"《연화

난 그 남자를 한번 쳐다 본후 돌아섰다
그런데 그순간

'..하게..마...스'
!!!

이게 뭐지?
나는 고개를 획 돌려 주변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주변엔 싸우고 있는 병사들뿐 아무도 없었다

"??왜그래,엘?"《트로웰
"방금..무슨 소리 안들렸어?《엘
"아무소리도 안들렸습니다만..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미네
"청력이 훨씬 좋으니까 다른사람말을 잘못 들은거 아니야?"《이프리트
"그런가..?"《엘

나는 고래를 갸웃거리며 돌아가는 일행을 따라갔다

***
"크크큭,후회하게 해주마,엘퀴네스. 크큭 이번엔 그냥 당하지 않아"

절벽에서 그들을,정확히는 엘을 쳐다보고 있던 검은 머리의 남자가 말했다

"고통스럽게 해주지,크크크큭"

===
공백제외:3553

과연 마지막은 누굴까요~?
누군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구..누가 제목좀여ㅠㅠ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헬마스터
헉! 마지막에 등장한 검은 머리의 남자의 정체는?
잘 보고 갑니다!
2020.06.12. 00:05 답글쓰기

ko 작성자
감사합니당~다음편 빨리 쓸게요~
2020.06.12. 06:46 답글쓰기

레이테
혹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검은머리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까요?
그리고 글 엄청 잘 쓰시네요.. 부러워요..ㅜㅜ
2020.06.12. 15:22 답글쓰기

ko 작성자
헉!!아니에여. 저 글 잘 못써요 ㅎㅎ